



2014년 12월 11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박형건 과장(043-870-5410), 이종현 연구관(043-870-5415)

제품안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

- 국가기술표준원, 「제품안전정책 포럼」 창립 총회 개최 -

□ 제품안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「제품안전정책 포럼」 창립 총회가 10일 오후 서울 베스트웨스턴 구로호텔에서 개최되었다.

○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주관한 창립 포럼에는 손동원 인하대 교수 등 42명의 발기인을 비롯하여 국민안전처, 관세청, 공정위 등 정부기관과 서울시, 인천시 등 지자체 그리고 소비자 단체, 기업 등에서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하였다.

□ 발기인 대표 손동민 교수는 국내외적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한 요즘에 「제품안전정책 포럼」의 창립은 시대적 요청이라며,

○ “첫째, 제품사고에 대한 안전기술과 대책을 연구개발하고 관련정보와 지식을 교류하여

둘째, 건전한 제품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자문을 수행하고, 제품안전문화 정착에 공헌하며

셋째, 제품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

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품안전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하는 밑거름이 되겠다”며 제품안전정책포럼의 창립을 선언하였다.

- 성시현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“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”며 “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안전한 생활을 위한 규칙을 함께 만들어가고, 만든 규칙을 누구나 지키도록 해야만 안전한 사회에 다가설 수 있다”고 포럼의 창립 배경을 설명하고,
 - 창립 포럼이 “올바르고 합리적인 제품안전 규칙을 함께 만들기 위한 참여와 소통의 장이 되고, 참여자들이 함께 이루어낸 규칙을 잘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”며 포럼 관계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주길 당부하였다.
- 패널토론에서는 제품안전 생태계 구축방안이 논의 되었으며 생태계의 축으로 제품안전정책, 시장감시 체계, 제품안전연구개발에 대한 발제와 참석자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있었다.
-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정책 포럼을 매년 2회 개최하여 제품안전 정책 관련 주요과제를 발굴·논의하고, 관련기관 및 연구자들의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함으로써 국민중심의 제품안전정책을 수립하는 플랫폼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.

<참고자료 1> 제품안전정책 포럼 프로그램 (안)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이종현 연구관(☎043-870-5415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제품안전정책 포럼 창립 총회 프로그램(안)

시 간	내 용	비 고
13:30 ~ (5")	개회선언	사 회 자
13:35 ~ (5")	포럼 창립 개회사	국가기술표준원장
13:40 ~ (5")	포럼 창립 축사	제품안전협회장
13:45 ~ (5")	포럼 창립 선언문 낭독	발기인 공동대표 (인하대 손동원교수)
13:50 ~ (15")	발기인 대표 제언	발기인 대표 3인
14:05 ~ (15")	포럼 창립 기념 촬영	발기인 전원
14:20 ~ (20")	제품안전 정책 및 포럼 추진방향	제품안전정책국장
14:40 ~ (20")	제품안전정책, 어디로 가야하나?	초청 강연 (인터젠 컨설팅)
15:00 ~ (20")	Coffee break	
15:20 ~ (80")	패널 토론 (사회: 손동원 인하대 교수) <주제: 제품안전 생태계 구축방안 > 1) 제품안전 정책 (10") - 제품안전정책 추진성과 및 개선방안 (중앙경영연구소 고병인 소장) 2) 시장감시 체계 (10") - 제품안전 시장감시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(관세청 통관기획과 서재용 과장) 3) 제품안전 연구개발 (10") - 제품안전기술개발사업 추진방향 (전주대학교 이해성 교수) 4) 토론 및 질의 응답 (50")	패널 토론자 - 오춘호 논설위원 - 허경욱 교수 - 이해성 교수 - 고병인 소장 - 정관현 과장 - 서재용 과장 - 김윤태 부회장
16:40 ~	폐회 선언	